

조선대 '문화리더 장학생 해외문화체험'

“봉쥬르 ~ 파리” 미래리더들 유럽에 빠지다



32명 일주일간 에펠탑·루브르 박물관 등 유럽 대표문화 향유
문화체험 포트폴리오 작성·조별 과제 발표 등 교육 프로그램 호평

조선대 학생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문화체험과 함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키웠다.

조선대가 마련한 이번 해외문화체험은 다양한 국가나 지역을 순회하는 여행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탈피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일주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집중적으로 문화 분야 교육을 실시, 프로그램의 집중도와 질적 수준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가 지난 1월 7일~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주일간 '문화리더 장학생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조선대는 학생들이 해외 문화 체험을 통해 창의적,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능력과 다양한 안목을 가진 융·복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매년 한 차례 문화리더를 선발해 해외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기는 누적인 마일리지 점수가 일정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 면접을 거쳐 총 32명을 선발했다.

대학측은 또 총 선발인원 가운데 60%인 20명을 4학년으로 선발, 취업 예정자와 취업 희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예술과 문화의 도시, 파리~고흐, 모네, 밀레의 숨결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프랑스 파리 일대를 탐방했다.

세계적인 예술작품을 간직한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 오랑주리 미술관 등을 둘러보며 안목을 넓혔다. 또한 에펠탑과 개선문, 노

트르담 사원, 베르사이유 궁전을 답사하며 유럽의 대표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여기에 고흐가 생을 마치고 직전에 작품 활동을 했던 마을과 작품 배경이 되는 장소들, 밀레의 집과 작품 '만중'의 탄생지 등 예술적 스토리가 만들어진 역사적 공간도 둘러봤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일주일간 조선대 해외문화체험 제5기 이민장 단장과 김순의 부단장·양효술 학생지원팀장은 학생들과 취업·진로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심화 토론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및 문화에 대한 갈증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참가 학생 중 1·2학년생들은 이번 체험을 계기로 다양한 국가·문화에 대한 폭넓은 체험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으며, 취업대상자인 3·4학년들은 단기간이지만 잠시나마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며 재충전의 기회로 삼았다.

이와 함께 이번 해외문화체험에는 시각장애 만학도인 박동해(44·특수교육과 3년)씨가 지원해 함께했다. 그는 많은 나이와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온 몸으로 파리의 문화를 체험하는 험거운 여정을 소화하면서 나머지 학생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었다.

학생들은 알찬 프로그램을 위해 '나는 이번 해외문화체험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리포트와 문화체험 포트폴리오를 개별 과제로 제출하고, 파리 일대의 문화 유적지와 역사 관련, 생활 환경과 에티켓 등을 주제로 조별 과제를 발표하는 등 내실있는 준비를 했었다.



루브르박물관의 명물인 유리 피라미드 앞에서 조선대 해외문화체험단 학생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할 환경과 에티켓 등을 주제로 조별 과제를 발표하는 등 내실있는 준비를 했었다.

한편 조선대는 글로벌 시대에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특성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을 위해 'CU-SP 시스템'과 문화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마일리지 제도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

생이 능동적으로 광범위한 문화의 향유, 공유, 창조 활동을 수행하고 여기서 축적된 역량에 대해 일정한 마일리지 점수를 부과해 문화탐방 및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도입한 문화마일리지 제도는 핵심 소양, 봉사, 독서, 취업, 국제화, 자기관리 등 6개

영역으로 나눠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축적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CU-SP(Student Portfolio) 시스템에 저장하면 개별 마일리지를 부여, 총괄 점수를 기준으로 문화마일리지 장학금을 수여하고 문화리더 장학생을 선발해 해외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글·사진=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변신 캐리어' 창업오디션 금상

손잡이·봉 탈부착 백팩·캐리어 변환 가능...아이티홀릭팀, 특허출원

호남·제주권 창업교육거점센터 주관으로 최근 개최된 2014 호남·제주권 연합창업캠프 창업오디션에서 동신대 아이티홀릭 팀이 1등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동신대 정보통신공학과 임형열(4학년)씨, 이병열·조대호(3학년)씨 등 3명으로 구성된 아이티홀릭 팀은 '프레임 탈부착으로 상호 변환이 가능한 캐리어 백팩'을 사업 아이템으로 한 창업 계획안을 발표해 경제성, 사업성, 창의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아이디어 상품은 캐리어 하단에 4개의 무게 측정 센서를 부착해 상단에 장착된 LCD에 무게 값을 표시함으로써 가방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제작했다. 또 캐리어 손잡이와 봉 등 프레임은 손쉽게 탈부착 할 수 있어 캐리어와 백팩 용도 모두 가능하다.

아이티홀릭 팀은 호남·제주권 창업교육거점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 아이디어제품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 상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사진·영상 공모전 12편 시상

전남대학교(총장 지병문)는 '2014 사진·영상 공모전'의 4분기 우수작 12편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부문 금상은 전남대생 김병수(산업공학과)씨의 '비상하는 전남대'가, 영상 부문 금상은 역시 조준(전남대 신문방송학과)씨의 '당신에게 전남대란?'이 각각 차지했다.

또 사진 부문 은상에 직장인 이민규(수질관리연구소)씨의 '침포', 영상 부문 은상에 전남대생 정유리(문화콘텐츠학부)씨의 '전대 한바퀴'가 선정되는 등 모두 12편의 입상작을 냈다.

전남대는 최근 시상식을 갖고 금상(2편)에 각 50만원, 은상(2편)에 각 30만원, 동상(3편)에 각 20만원, 장려상(5편)에 각 10만원씩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대학구조개혁평가 대비 TF팀 구성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욱)가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 직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기로 했다.

동강대는 최근 대학 보건관 2층 세미나실에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안내'를 위한 전체 교수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올 1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새로운 평가체제를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노모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재정 지원 제한, 입학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에게 위기의식도 함께 고취시켰다.

동강대는 조만간 T/F팀을 구성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한 교육의 질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 등의 아이디어를 짜낼 계획이다.

김동욱 총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앞으로 대학의 운명과 직결되는 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하게 준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만족도를 높인다면 동강대가 진정한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www.yonhapnews.co.kr

2만7천명 인물정보 한눈에...
'2015 한국인물사전' 발간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7천여 명의 프로필을 담은 국내 최대 인물사전 '2015 한국인물사전'이 출간됐습니다.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7천여 명의 프로필을 수록한 '2015 한국인물사전'이 발간됐습니다.

연합뉴스가 펴낸 이 사전은 정·관계를 비롯해 경제계·학계·언론계·문화예술계·체육계·종교계 등에서 활동하는 저명 인사를 두루 망라하는 국내 최대의 인물사전으로서 자세한 인물정보와 함께 사진까지 담았습니다.

특히 기획인물편에서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4천여 명의 명단(상권 수록)과 프로필(하권 수록)을 한 섹션으로 편집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수록 인사와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촉해 자료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인터넷과 관련 문헌도 꼼꼼히 참조해 보았습니다.

2015년판은 지난해에 비해 3천여 명을 추가했으며, 수록인물도 상당수 바뀌어 최신 인물 소개에 주안점을 했습니다.

■ 국배판·상권 1천 244쪽 / 하권 1천 612쪽
■ 가격 : 18만원

국립 서울(02)398-3991~3 37(031)238-2222 22(032)427-1236 21(042)521-9705 20(082)264-5777
부산(043)226-9035 33(063)242-7652 31(051)281-0010 부산(051)441-7400 대구(053)355-3800

연합뉴스 YONHAPNEWS.COM